

2019년 4월 2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실적에 주목하며 혼조 마감 바이오 및 대형 기술주 강세

업종별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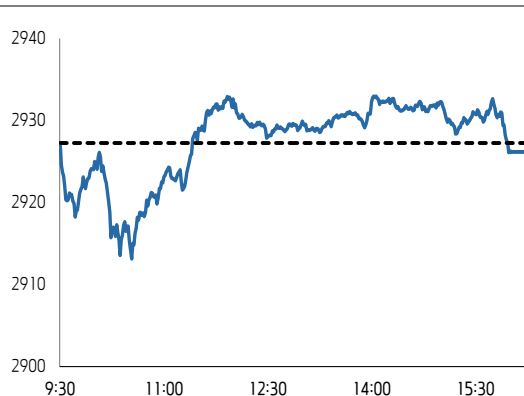
미 증시는 실적에 기반해 변화를 보이며 혼조 마감. 다우지수는 3M 이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하락 했으나, 나스닥의 경우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대형 기술주 및 바이오 업종 강세로 상승. 대체로 주변 이슈보다는 실적에 기반한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짐(다우 -0.51%, 나스닥 +0.21%, S&P500 -0.04%, 러셀 2000 -0.79%)

최근 미국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율은 5년 평균인 72%를 넘어서 78%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이 이어진다면 과거 사례에서 보듯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 특히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실적 시즌 시작 시점에 발표된 이익 추정치는 마감되는 시점에서는 평균 +3.7%p 상향 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 이를 감안 1분기 S&P50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3% 둔화에 그칠 것으로 전망. 이런 분석이 이어지자 미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러다 보니 미국 기업들은 실적 발표시 예상을 상회하면 상승률이 5년 평균(+1.0%) 보다 많은 +2.1%를 기록한 반면 예상을 하회하면 5년 평균(-2.5%) 보다 큰 -3.0%를 기록하는 등 차별화가 이어짐. 여기에 개별 기업 실적 발표 후 관련 업종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이렇듯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적 시즌에는 다른 이슈보다는 실적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반증. 이를 감안 당분간 증시 주변 이슈 보다는 실적에 따라 시장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은 큰 폭으로 개선된 영업이익을 발표했으나 매출이 예상과 부합되었다는 점이 부각되며 시간외로 1.2% 상승에 그치고 있음. 인텔은 예상과 부합된 결과를 내놓았으나, 2019년 전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 했다는 소식을 내놓으며 시간외로 6% 넘게 급락 중.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자수동락률(%)	Close	D-1	자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90.50	-0.48	홍콩항셱	29,549.80	-0.86
KOSDAQ		750.43	-0.98	영국	7,434.13	-0.50
DOW		26,462.08	-0.51	독일	12,282.60	-0.25
NASDAQ		8,118.68	+0.21	프랑스	5,557.67	-0.33
S&P 500		2,926.17	-0.04	스페인	9,501.20	+0.47
상하이종합		3,123.83	-2.43	그리스	772.74	+0.01
일본		22,307.58	+0.48	이탈리아	21,719.88	-0.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인텔, 시간 외로 6% 급락 중

전일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MS(+3.31%)와 페이스북(+5.85%)은 급등 했다. 반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자일링스(-17.08%)는 급락 했다. 3M(-12.94%)은 부진한 실적과 감원 발표에 따른 향후 전망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급락 했다. 일리노이즈 톨(-3.58%), 록웰 오토메이션(-6.71%) 등 여타 산업재 업종도 동반 하락 했다. 물류회사인 UPS(-8.13%)도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하락 했다. 페덱스(-4.57%)와 함께 노퍽크(-1.87%) 등 철도 물류 회사도 동반 하락 했다.

한편, 애플(-0.91%)은 대부분의 투자회사들이 향후 아이폰 판매가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 점이 부각되자 하락 했다. 아나로그디바이스(-1.94%), 스카이웍(-1.52%), 브로드컴(-0.80%) 등 애플 부품주들도 동반 하락 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0.03%)은 큰 폭으로 개선된 영업이익을 발표한데 힘입어 1.2% 상승 중이다. 스타벅스(+0.94%)는 개선된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1% 넘게 상승 중이다. 포드(-1.67%)는 견고한 실적 발표 이후 6% 넘게 급등 중이다. 반면, 인텔(-1.89%)은 예상에 부합된 실적을 발표했으나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 하자 6% 넘게 급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52%	대형 가치주 ETF(IVE)	-0.50%
에너지섹터 ETF(OIH)	-2.47%	중형 가치주 ETF(IWS)	-0.63%
소매업체 ETF(XRT)	-0.92%	소형 가치주 ETF(IWN)	-1.07%
금융섹터 ETF(XLF)	+0.18%	대형 성장주 ETF(VUG)	+0.22%
기술섹터 ETF(XLK)	-0.03%	중형 성장주 ETF(IWP)	-0.6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3%	소형 성장주 ETF(IWO)	-0.62%
인터넷업체 ETF(FDN)	+0.50%	배당주 ETF(DVY)	-0.23%
리츠업체 ETF(XLRE)	-0.1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4%
주택건설업체 ETF(XHB)	-1.4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8%
바이오섹터 ETF(IBB)	+1.01%	미국 국채 ETF(IEF)	-0.12%
헬스케어 ETF(XLV)	+1.03%	하이일드 ETF(JNK)	+0.03%
곡물 ETF(DBA)	-0.43%	물가연동채 ETF(TIP)	0.00%
반도체 ETF(SMH)	-1.97%	Long/short ETF(BTAL)	+0.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6.50	-0.28%	-0.60%	+1.66%
소재	354.45	-1.29%	-1.97%	+3.82%
산업재	648.24	-1.99%	-0.64%	+4.34%
경기소비재	948.60	-0.48%	+0.44%	+6.41%
필수소비재	580.60	-0.75%	-0.85%	+1.20%
헬스케어	1,020.19	+1.13%	+2.81%	-2.59%
금융	455.67	+0.26%	+0.20%	+7.89%
IT	1,383.78	-0.00%	+1.63%	+7.96%
커뮤니케이션	169.15	+1.08%	+2.06%	+7.04%
유틸리티	294.25	+0.43%	+1.26%	-0.95%
부동산	221.30	-0.18%	+1.41%	-0.7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조정 지속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14%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47 계약) 불구하고 0.05pt 하락한 283.2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8.7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중국, 한국 증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의 경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자 사상 최고치 경신을 보였다. 반면, 한국 증시의 경우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실적이 부진하자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다. 그러다 보니 약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증시의 경우는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자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축소 및 인민은행의 유동성 긴축 우려가 부각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전일 중국 상해종합(-2.43%), 심천종합(-3.41%) 급락 요인 또한 유동성 축소 우려가 높아지며 급락 했다.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으나, 역 RP 를 통해 800 억 위안을 회수하고 Shibor 급리가 상승하자 유동성 축소로 이해하며 매물을 내놓았다.

이렇듯 한국 증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각개전투 방식으로 전환 했다. 이는 실적시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며, 이를 토대로 호·약재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 증시도 미 증시가 혼조 마감 했으나, 여전히 달러, 엔화 등이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져 있어 그리 녹녹치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28 일 있을 스페인 총선에 따른 유럽 정치 불확실성 부각에 따른 유로화 약세 가능성 제기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인텔이 시간외로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로 6% 넘게 급락 중이며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도 시간 외로 2% 넘게 동반 하락 중인 점도 부담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내구재 주문 증가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19.3 만건)나 예상치(20.9 만건)를 상회한 23 만 건을 기록했다. 4 주 연속 또한 20.6 만건으로 지난주(20 만 1,500 건)를 상회했다.

3 월 미국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2.7% 증가해 전월(mom -1.1%)이나 예상치(mom +0.7%)를 상회했다. 운송을 제외한 수주도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4 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는 전월(10) 보다 둔화된 5 로 발표되었다. 다만, 홍수등 날씨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영향력은 제한 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화 강세 지속

국제유가는 달러화 강세 및 사우디 아라비아 일부 관리가 이란 제재 강화를 빌미로 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한편, 폴란드, 독일이 오염물질이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 경로인 파이프라인을 잠갔다고 발표한 점은 상승 요인이었으나 영향이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유로화가 28 일 있을 스페인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약세를 보이자 여타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 나아가 최근 캐나다를 비롯해 스웨덴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이유로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한편, 엔화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내구재 수주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53 배)를 하회한 2.49 배, 간접응찰률도 12 개월 평균(62.1%)를 하회한 60.4%에 그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불구 유럽 정치 불확실성 부각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보합을 보였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및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 축소 우려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6% 상승했으나, 철근은 0.3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5.21	-1.03	+2.10	Dollar Index	98.185	+0.01	+0.73
브렌트유	74.35	-0.30	+3.81	EUR/USD	1.1133	-0.20	-0.86
금	1,279.70	+0.02	+0.23	USD/JPY	111.66	-0.47	-0.28
은	14.960	-0.24	-0.39	GBP/USD	1.2892	-0.08	-0.76
알루미늄	1,857.00	-0.80	+0.08	USD/CHF	1.0205	+0.01	+0.50
전기동	6,365.00	-1.29	-2.00	AUD/USD	0.7015	0.00	-1.90
아연	2,741.00	-0.04	-2.46	USD/CAD	1.3488	-0.04	+0.84
옥수수	357.25	+0.35	-2.66	USD/BRL	3.9499	-1.05	+0.25
밀	441.50	+0.68	-1.94	USD/CNH	6.7516	+0.25	+0.66
대두	872.75	+0.46	-2.21	USD/KRW	1160.50	+0.83	+2.08
커피	93.35	+1.08	+4.13	USD/KRW NDF1M	1158.70	+0.34	+1.98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534	+1.62	-2.53	스페인	1.088	+1.80	+2.30
한국	1.877	-3.50	-1.50	포르투갈	1.183	+1.60	+2.00
일본	-0.031	+0.60	-0.40	그리스	3.290	+0.50	-1.30
독일	-0.009	+0.30	-3.40	이탈리아	2.688	+5.60	+8.70